

〈임화정연〉 속 출가 이야기의 양상과 그 함의*

허순우**

— <차 례> —

1. 들어가며
2. ‘죽음’ 혹은 그에 준하는 극단적 사건을 통해 삶의 전환점에 서기
3. 화해와 행선적덕(行善積德)으로 새로운 삶 기구기
4. 낭만적 대안과 엄정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하기—결론을 곱하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임화정연〉에서 출가를 하는 사대부가 여성 조옥연(이하 조씨)과 시비 석가월의 행보에 주목하여, 상층 여성들이 주 향유자였던 장편소설이 여성들의 출가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 배경과 출가 이야기의 양상,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 생각해본 것이다. 가내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겪던 두 인물은 출가를 통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 대다수 장편소설이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해결법으로 선인형 여성의 인내를 제안하는데, 그와 달리 〈임화정연〉은 출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흥미롭다.

두 인물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죽음, 혹은 죽음에 준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야 천상의 옥경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결과 인물들은 용기를 내어 삶의 전환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가를 결심한 후 이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도교 세계로 다가가는 ‘수련’의 일환으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적덕하는 양상을 보였다.

출가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는 출가를 결심하고 수련의 시간을 거쳐 도교의 도사로 좌정한 두 사람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과 후일담에 관한 것으로, 본 논문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출가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표면적으로는 이 작품이 고난 극복의 방편으로 출가라는 환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례들과 유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독자들을 위무하고 도덕적 교훈과 흥미를 제공하여 낭만적 감상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사가 된 그들을 바라보는 타인의 언술이나 후일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과연 출가와 같은 낭만적 상상이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가, 고난이라는 것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바, 출가 이야기는 향유자로 하여금 환상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고 보았다.

□ 죽음, 수련, 화해, 적덕, 출가, 후일담, 환상, 현실

1. 들어가며

<임화정연>은 임, 화, 정, 연 그리고 여씨 가문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혼맥 형성 과정을 그린 국문장편소설이다. 절강성에 살던 사대부가 자제들이 중앙 정부로 진출하여 국가에 공을 세우고, 혼인을 통해 권세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화정연>의 전반적인 서사를 고려할 때 이 작품이 별렬지향성을 지녔다고 평가했다.¹⁾ 한미한 가문의 일원을 남성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점이나, 작중 인물들의 세거지를 수도 근처가 아닌 지방으로 설정한 점 등이 독특하기는 하지만, 혼인을 통해 가문의 외연을 넓혀가고 과거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공직에 진출, 가세를 확장해가는 이야기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소설의 큰 줄기가 독자에게 익숙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면, <임화정연>이 다루는 지엽인 이야기들은 이 작품의 개성적 관심사를 읽을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있다. 왜곡된 방식으로 자식 사랑을 표출하는 정운희의 어머니 진씨, 충심으로 주인을 보좌하면서 집 밖의 세상 경험을 하는 시비 석가월, 혹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담장 밖 세계에 대한 관심과 편력, 여성 억압, 가난 등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가부장제나 유교 이념, 충, 효, 열 등과 같은 교과서적 이야기와 달리, 소설 밖 현실 속에서 소설 향유자들이 쉽게 접하고 경험하며 고민해볼 법한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들 주변적 인물의 삶과 고민을 풀어어나가는 서사에 주목하여, 이념이라는 거시적 주제의 하위에 자리하고 있는 생동감 있는 미시적 일상의 모습들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시도되었다.²⁾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출가(出家)³⁾ 이야기 또한 <임화정연>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주변인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사대부가 며느리인 조씨와 시비 석가월이 그들인데 이들은 가문이라는 사회적 공동체 안

2)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국어국문학』 7, 국문학회, 2002, 325~355면;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허순우, 「<임화정연> 소재 첩 관련 서사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등.

3) 출가(出家)의 사전적 정의는 “세속의 집을 떠나 불문에 들.”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에 귀의하는 삶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도형이 죽결하였다가 쉰 후 녀시 유유호여 그 모친 병력을 쓰라 디장궁의 갖터란 말은 드러시디 이런 괴특호니 일이 이시를 아디 못하였더니 도형의 골격이 다 발서 신선이 되어 이번 보미 괴특호미 더호였고 선술과 도형이 비상호여 스즈를 브싱케 호는 슈단이 이러트 괴특호니 결단코 녀염 부녀로 맛디 아니리니 그 원을 일우게 호쇼셔. 출가호미 천호나 고금의 왕왕이 공쥬와 후비라도 슈도호여 득도호니 이시니 관게치 아니리이다.” <임화정연> 61권 31~32면.
<임화정연>이 출가의 의미를 도교에의 귀의로 보고 있음은 인용한 본문 속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라는 선택을 한다. 두 사람 중 석가월은 신분제도의 문제, 여성의 주체적 자각, 자기해방 등의 측면에서 그 행위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되었고, 조씨는 자기만의 공간을 추구하거나 비참한 결혼 생활에 저항하고 탈주를 통해 자기구원을 하는 인물로 연구되었다.⁴⁾ 가장 최근에는 장편소설의 도교 서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조씨와 석가월의 도교 입교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이들이 다루어지기도 했다.⁵⁾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석가월과 조씨의 출가가 평범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을 드러냈고, 인물의 개성을 부각시켜 주었으며, 그들의 선택이 갖는 주제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장을 형성해주었으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화정연> 속 여성 인물들의 출가 이야기는 여전히 재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출가를 탈주나 구원과 같은 낭만적인 대안이나 갈등 봉합의 수단과는 다른 시각에서 다시금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 출가 후 거친 수련 그리고 후일담이 전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 도교 세계로의 출가 이야기가 함의하는 바⁶⁾에 대해 다시 한

4) <임화정연> 속 석가월과 조씨를 다룬 최근 연구로는 한길연(200), 앞의 논문;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지연, 「모험하는 여성과 '탈주'의 궁극 : 구원되거나 해방되거나」,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선행 연구에서는 <임화정연> 속 도교서사의 특징을 밝히는 가운데, 이들의 종교 귀의가 황실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에서 체제지향적인 행위이자 갈등 봉합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연구 -<천수석> 및 <임화정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채윤미, 「고전소설 속 도교 형상화의 일고찰 -<임화정연>과 <손천사영이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6) 본 연구에서는 도가와 도교 두 용어 중 '도교'를 사용한다. 종교로서의 도교와 철학으로서의 도가를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둘을 단절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하나의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김현주, 「고전

번 생각해보려 한다.⁷⁾

문학과 전통회화에서의 도교담론과 도교도상의 수용양상,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6면.)

한편, 본 연구의 목표는 작품에 구현된 도교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들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출가 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 있음을 한 번 더 언급한다. <임화정연>의 도교적 요소에 주목한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채윤미(2018, 2019)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고전소설과 도교의 관계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김시습이나 허균의 소설을 비롯한 개별 소설에 반영된 도가적 요소를 찾고 도가적 세계관과 고전소설을 관련지어 분석한 최근 논의로는 박영호,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 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안동준, 『김시습 문학과 도교사상』,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1998; 김재웅, 『가문소설에 나타난 도가사상 - <천수석>을 중심으로』,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1998; 김경미, 『<옥수기> 연구-이념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최윤희, 『<손천사 영이록>의 이본 특징과 존재 의미』,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허원기, 『<손천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등을 들 수 있다.

또 최근 들어 우리 고전소설과 도가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해 도가 사상의 문학적 혹은 문화적 원형을 탐색하고자 하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도가 경전 가운데 『진고(眞誥)』의 문학과 공간 상상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고소설이 구현한 도가적 공간 상상력과 비교하여 고전문학이나 도교 경전의 상상력이 같은 문화에서 잉태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한 연구들(김수연, 『애국계몽기 민족도교와 고소설 - 신자료 <몽견제석(夢見帝釋)>의 소개를 더하여』, 『동방학지』 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김수연, 『<도장(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도가적(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1』,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을 예로 들 수 있다.

7) 본 논문은 강춘재 소장 72권 72책 <임화정연(임화정연)>을 대본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강춘재 소장 <임화정연>은 작품 후반부로 가면서 도교로 출가하는 석가월과 조씨의 서사를 잘 보여주는 이본이다.(김동욱(2016), 앞의 논문, 127면.)

2. ‘죽음’ 혹은 그에 준하는 극단적 사건을 통해 삶의 전 환점에 서기

시비 석가월은 비록 신분은 천인이지만 총명하고 재주가 남달라 주인 정운희가 벗처럼, 자매처럼 의지하는 인물이다.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이고, 타고난 총명함과 재주로 인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력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정운희에게 닥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 한 후 석가월은 하층 신분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억압에 맞서 출가의 길을 선택한다.

조씨는 금오 여익의 며느리로, 여정옥과 15세 무렵에 혼인하지만 정옥이 괴질에 걸려 요절하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인물이다. 불만한 남편에 대한 불만과 남편의 병약함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조씨는 시어머니 소씨와 시동생 여성옥 등의 박대와 모함으로 인해 자결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갈등과 고난을 경험하다가 끝내 가문을 벗어나 석가월과 마찬가지로 집 밖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된다.

<임화정연> 사회적 신분과 처한 현실이 상이한 석가월과 조씨라는 두 인물을 설정하여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들의 고된 현실과 고난 극복의 과정들을 엮어 보여준다. 사대부가 며느리와 사대부가 여종의 만남과 출가 선택이 그럴 듯해 보이려면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씨에게는 남편의 요절과 시모와의 갈등이라는 고난을, 석가월에게는 적국의 시기 질투와 자기 처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라는

8) 난난 등 스인은 통의넬스오 하루 등 가인이라. 문치 빈빈하고 성달이 총명하며 디식이 유여하니 쇼계 슈족갓치 사랑하여 향규의 디심이 되니 기둥 가월은 품슈훈 비 산 천정기와 일월디명을 일편도이 타나 지괴과인하여 가인지스의 밋출 비 아니니 앓갓다 녀지 되미여. 만일 남지 되던들 엇디 스업이 업스리오. 위쥬통심이 스인 등 싸혀나니 쇼계 더욱 사랑하여 일시도 썸나디 아니터라. <임화정연> 1권 9~10면.

문제적 상황을 부여한 후, 고난이 응축되는 시점에서 ‘죽음’ 혹은 그에 준하는 강도의 고난 체험을 하게하고 천사의 예지를 접하게 하여 이들의 출가 선택과 만남에 개연성을 더한다.

석가월이 적국으로서 자신을 견제하는 임규의 첩 양씨의 시기와 질투에 못 이겨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규라는 남성의 첩이 되어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운명을 거부하고 출가하는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⁹⁾ 그런데, 출가를 결심한 지점이 단지 임규의 여러 처첩 중 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싫다고 느꼈을 때가 아니라, 석가월을 질투하던 임규의 첩 양씨가 오라비 양경과 짜고 석가월을 해치려 한 사건이 발생한 후, 즉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근접한 생명의 위협과 맞닥뜨리게 된 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본다면 죽음이라는 사건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사건 이후 석가월은 정운희를 비롯한 가중 인물들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출가를 감행하게 된다.

충직하게 주인을 보필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석가월은 양씨의 청부 살해 시도 사건에 직면하여 여과 없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¹⁰⁾ 그리고는 양씨가 머물고 있는 정부를 떠나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데, 이때 아미산에서 자암진인 청계선생을 만나 자신과 조씨

9) 한길연(2007), 앞의 논문; 김지연(2009), 앞의 논문; 김동욱(2016), 앞의 논문; 채윤미(2018), 앞의 논문; 김지연(2019(2)) 앞의 논문 등.

10) 하늘이 사름의 원을 좇디 아니코 시시 뜻갓디 못흐와 간조불인이 쇼비의 금석 갖튼 심정을 놀니옵는디라 우리 노쥬의 정을 츠마 쫓디 못흐고 우련호은죽 간인이 작히호미 쫓디 아닐 거시오 님노야의 번스호시미 쇼비를 괴롭게 호샤 쇼비 디뵈를 완전치 못흔죽 우분상성호미 반듯홀 거시니 쇼비 비록 하천이오나 엇디 어버이 갓친 바 신테를 가바야이 브리리오 너른 텃하의 어디 가 안신치 못흐여 브절업시 원혼이 되어 싱혹흔 어버이 은혜를 저버리오며 우리 부인 디기를 갑습디 못흐고 죽으미 편협디 아니호리잇가 <임화정연> 61권 52면.

가 천상 인연이 있어 도관에서 함께 도를 닦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 살해 음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자유로운 삶을 갈망했지만 시비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느라 뜻을 펴지 못했던 석가월은 양씨의 악행을 기점으로 하여 주인의 허락이나 세속의 임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유람하겠다는 용기를 낸다. 그리고 세상 경험을 한 후 돌아와 가중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출가를 선언하는 결단을 내린다.¹¹⁾ 죽음이 눈앞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 그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조씨가 도사가 될 자신의 운명을 인지하고 삶의 행로를 전환하게 되는 때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조씨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난에 극도로 시달리다 간신히 누명을 벗은 후 더 이상은 치욕을 견디며 삶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¹²⁾을 시도한다.

내 팔지 흥하고 전세 죄악으로 모친을 조별하고 혼갓 너가의 부귀만 탐하여
인물의 현우를 갈회디 아나 추루흔 병인을 비필흔니 흥년 십칠의 호로도 즐겨
오물 보디 못하고 머리 뺏던 지 다숫 히로디 부부의 낙스를 보디 못하고 금의와

11) 평생 스모하던 산천풍경을 보오며 대찰도관의 늙흔 사름을 츠자 뉴런호오미 춘취 크로 뒤이져 세월이 7는 줄 씨닷디 못허더니 히포 되오미 부인니 옥안을 스모호와 비회 극허옵고 쏘 쇼비 노야기 득죄허엿습는 고로 일개 괴이흔 가인을 드러 속죄허옵고 허허시는 명을 엿즈온 후 아조 출가하여 도를 닦고즈 하여 니느러 삼부인을 존안을 받기옵는 등 쇼비의 스죄를 샐허시고 이러톳 허시니 쇼비의 뜻을 일우올디라 감은흔를 니괴디 못허리로소이다 <임화정연> 61권 68~69면.

12) 도시 외로이 난간을 비겨 턴익를 바라며 신세를 어로만져 스랑허미 이구 청춘으로 옥안화미의 팔지 괴협하여 혼 낫 농고잇 가부를 만나 세상 흥낙을 모로다가 맞춘니 천고박명디인이 되어 디원 극통의 누명을 시러 블인흔 존고와 스오나온 식숙을 견디어 곤욕을 춤고 신누를 버셔시나 첩첩흔 설움과 무궁흔 통원이 세상의 투싱힐 길 업서 반야감성의 빅발 노부를 쇼기고 즈결허기를 피할니 가슴을 어로만져 참담흔 심스를 슬허하며 부양턴디의 인위 오월 당슈 굿트며 7마니 늦기는 소리 처쳐하여 앙턴 비톡 왈 <임화정연> 51권 6~7면.

팔단미를 얹힌 가부를 그릇 만나시니 으어서 즐거오리오. 괴이한 형상을 춤아 보디 못하고 존고와 숙미금장의 불인학을 춤아 견디디 못하여 어즈러운 꼴 보기 슬흔 고로 미양 친청의 있고 일년의 슈삼츠 도라오미 이신들 구가의 일이 엇던동 아디 못하고 세월을 보니다가 맞춤니 천고 박명디인이 되니 녀가와 나는 전세 원개라 출하리 죽어 모르고져 헛엇더니 존고의 횡시 츄마 인정 바기오, 언단이 2장 슈상하니 이 반드시 간참이 잇서 불명혹신 존고를 도도마니 내 죽을던디 존귀 도라오신 후 반드시 불미흔 미명이 죽은 몸 우히 실리리니 혼백인들 엇디 원민치 아니리오. 원리 내 녀싱으로 더브러 명위부뷔나 실은 우은디라. 무스 일 저를 쓰라 죽어 청춘인성이 무의고흔이 되리오. 잔명을 단여 존귀 도라오시물 기다려 무슴 참얼이 이실고 보며 삼년을 디니고 죽으리라.

<임화정연> 44권 25~26면.

조씨는 남편 여정옥이 병으로 죽은 후 정절을 의심받고 자결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여씨 가문의 “부귀만을 탐하여” 인물을 제대로 보지 않고 결혼에 응했던 자기 집안의 선택을 반성할지언정, 괴로운 심사를 줄줄 읊을지언정 모함의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함부로 죽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절을 의심받고 죽음을 강요당하며 육체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자결을 감행한 된 조씨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이미 죽어 천상에 거처하던 생모 윤씨의 소개로 옥경 교주 낭낭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광보경이라는 신비한 거울이 보여주는 자신의 전생 과보와 지광염경이 보여주는 자신의 미래사를 확인한 후 출가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도시 몽스를 괴록혹미 녀녁히 안저의 버렸는디라 드디여 혼 필 겁을 펴고 치호를 썬혀 평성 이지를 다하여 몽스를 의방하여 녀녁히 그려나니 필법이 정묘하고 치식이 넝농하여 괴이한 화법이 찬난하니 (중략) 도시 왈, 내 이번의 혼백이 이 쓰히 니러러 션 티티의 인도호시므로 선가의 가 교슈낭낭기 뵈와 과거

미리스를 다 가르치시미 십분 명명하여 두 가디 거울노 아득흔 모습을 씨닷게
 하신 고로 내 정신이 상연하여 다시 죽을 모습을 굿치고 턴의를 순수하여 죄를
 소멸하려 하느니 혼몽이 명명 괴이흔 고로 기록하여 그러느니 여등은 누설치
 말나. 내 망부 삼상을 맞춘 후 구고기 품하고 출가하리라. 유피 눈물을 흘려 왈,
 노신이 쇼져의 명박함을 각골 슬허하더니 쇼져의 말씀을 드르니 이러하미 다
 턴의 덕인 바이로소이다 소제 종상 후 출코져 하신들 등 되느니는 디극히 하천
 혼 무리라 후문잠영의 스족 부녀의 hinghil 비 아니라 우리 노야는 혹 즈이의 닛글
 녀 쇼져의 소원을 좃츠시나 녀노야는 네법을 심스하시고 성되 고집하시니 비례
 디스를 허하실 니 만무하니 쇼제 뜻을 일우시리잇고, 쇼제 왈, 턴의 덕하신 바를
 존귀 엇디 역하시며 나의 소원이 간절흔 바의 엇디 허치 아니시리오. 존귀 비록
 고집하시나 당당 존귀와 당부인은 즈인명철하시미 타류와 다르시니 이 화도를
 보시고 나의 소회를 드르신즉 존구를 원하여 원을 일워주실 거시니 내 맛당이
 하날을 위하여 도를 닥고 선을 힘 써 죄악을 소멸하고 니세를 닥가 후세나 쾌
 인성이 되리라. <입화정연> 51권 32~34면.

조씨는 출가를 “디극히 하천흔 무리라 후문잠영의 스족 부녀의 hinghil 비 아니라”고 비판하며 설득하는 유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맛당이 하날을 위하여 도를 닥고 선을 힘써 죄악을 소멸하고 니세를 닥가 후세나 쾌인 인성이 되리라”라고 하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전생의 업보이므로 현세의 고난은 면할 수 없지만 도를 닦아 내세에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조씨 역시 자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몰려 천상의 예지를 듣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사족 부녀의 출가를 부정할 것으로 보고 만류하는 유모들과 유사한 태도로 출가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처해 삶의 행로를 바꾸면서, 새롭게 내세를 계획해보게 된 것이다.¹³⁾

13) 선행 연구에서는 조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이 가장 누추해진 순간 비로소 조옥연의 모험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출가를 결심한 조옥연

정리하면, 조씨나 석가월이 경험하는 죽음과의 맞닥뜨림과 그로 인해 접하게 되는 천상의 예지¹⁴⁾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했던 속세의 인간이 선계와 교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신비한 사건이며, 상징적으로는 해당 인물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아야겠다는 인식 전환을 이루는 계기인 것이다.¹⁵⁾ 이때, 신분적, 가족적 제도의 억압에서 벗어나 출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겪는 극한의 경험이 “죽음” 혹은 그에

의 선택을 ‘탈주’로 평가했다.(김지연(2019(2)), 앞의 논문, 255면.)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씨의 선택을 적극적인 탈주나 모험으로 보기 보다는 절명의 순간, 운명에 이끌려 두려움을 지닌 채 소극적으로 집 밖을 향한 행위로 본다. 그 이유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상의 예지를 받아들인 조씨가 출가를 위해 집안 어른들의 허락을 구할 뿐 아니라, 현세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의지보다는 후세의 평안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 14) 조씨가 꿈 속에서 옥경 교주 낭낭을 만나고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석가월도 꿈 속에서 취미궁을 방문하여 교주 낭낭과 조씨의 어머니 윤씨를 만나고 조씨에게 전할 서책 세 권과 환약 두 알을 받게 된다.

“그 녀저 가월의 절을 밧고 표연이 드러가니 낭이 스미속으로 서책 세 권을 주어 알네 맛당이 이 칙을 가디고 도시를 츠즈 전하라 텨서는 속인이 능히 보디 못하나 도시는 견의 글즈를 가르쳐 알게 하여시니 미구의 네 또 도시기 빅호고 이 약 두 환을 주니 도시를 주어 티일 발천홀 근본을 삼으디 일절 가바야이 누설치 말나 (중략) 가월이 답고저 하더니 그 부인이 팔을 드러 밀치니 몸이 딘던하여 층층흔 썸의 구을너 나려디미 놀나 정신이 표홀허고 촌 썸이 만신하여 황황하다가 씨다르니 이 곳 남가 일몽이오 몸이 초당 우희 독상을 의디하여 몽시 녀녀흔디라 <임화정연> 58권 24~25면.

- 15) 도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대체로 외단, 내단 등의 연단술, 불노장생 등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의 도사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관 같은 곳은 아니더라도 국문장평소설을 보면 속세의 평범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인물들이 그 전에 여러 차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점, <남궁선생전>의 남궁두와 같은 인물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후 현실을 떠나 도가의 신선이 된다는 점, <영이록>의 손기 같은 인물이 가족들의 박대와 모욕에 못 이겨 죽음을 각오하고 집을 떠난 후 천서를 받고 수련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는다면, 적어도 탈속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할 만한, 죽음 못지않은 고통의 순간이 해당 인물들에게 있을 때 그들의 출가 선택을 소설 독자들이 개연성 있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준하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이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한 인간이 삶의 전환점에 설 수 있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삶의 대 전환을 이끌 만큼 극단적인 사건이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⁶⁾

3. 화해와 행선적덕(行善積德)으로 새로운 삶 꾸기기

석가월과 조씨가 출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죽음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이전부터 누적된 삶의 다단한 문제들 역시 이들이 결단을 내리는 데 일조했을 것은 분명하다. <임화정연>은 출가를 결심한 후 두 인물

16) <천수석> 연작과 <임화정연> 연작의 도교 서사를 살핀 선행연구(채윤미(2018), 앞의 논문, 41~63면 참조)에서는 <천수석>에서 수련의 계기가 되는 것은 “부정적 현실인식”이고 <임화정연>에서 수련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은 “성의 질곡”이라고 보았다. 해당 논문에서는 석가월은 신분적 한계에 대한 고뇌 때문에 출가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이념 지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층의 관념에 입각하여 주인과 같은 남편을 둘 수 없어 출가를 결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타인과 갈등하거나 모해를 당하는 등의 고통을 경험하는 고전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대체로 이념 지향적인 인물들로 묘사되지만 그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념에 복무하기 위해 출가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임화정연>에서 석가월과 조씨가 출가하는 장면을 살펴보아도, 출가 결심을 위해 필요한 것은 투철한 이념보다는 죽을 위기로 대변되는 극심한 고난과 함께 자신의 삶과 사회 제도를 회의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시각이다. 작품에 따르면 석가월과 조씨는 애초에 주어진 신분이나 처한 상황이 불리했고, 죽음을 강요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 위기를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의 이상과는 괴리가 있는 현실 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력을 지녔다는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가월과 조씨의 출가가 주인에 대한 충심이나 성의 질곡을 못 견디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인물이 강렬한 자극을 만나 삶의 전환을 도모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건은 삶의 전환을 결심하게 하는 강렬한 자극을 상징적인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도사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크게 두 가지 일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자신을 괴롭혔던 세속의 문제들을 모두 떨어내는 것과 타인을 구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도사로서의 자질을 갖춰가는 것이 그것이다.

석가월과 조씨는 삶의 전환점에 서기 이전부터 다양한 인생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임화정연>은 석가월을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인물로 묘사한다.¹⁷⁾ 그러나 석가월은 6세의 나이에 여동생 섬월과 함께 정부로 팔려와 정운회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¹⁸⁾ 빈한한 가정의 아이였다. 재기 과인한 인물이 가난 때문에 시비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느꼈을 좌절감은 출가를 앞둔 석가월이 여동생 석섬월에게 하는 발화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신세 한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동생의 행복을 빌면서 자신의 궁박한 팔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월이 쇼왈 현대는 부귀영낙을 즐겨하나 나는 텃성이 낙낙하여 부귀던뵈 흥모 갖고 영육이 부운 갖트니 엇디 괴로오를 알며 부부화락과 즈녀즈미를 몽미의나 뉴렘하리오 그디는 고요덕설의 뜻이 잇고 나는 쇼부 허유의 청심이니 디개 니도하고 소견이 갖디 아니니 엇디 일기로 의논하리오 슈연이나 그디 등의 복되든 날 갖든 궁상의 비기디 못하리니 종시를 조심하고 삼가 슈다 인원의 식

17) 난난 등 스인은 통의닐스오 하루 등 가인이라. 문치빈빈하고 성달이 총명하며 디식이 유여하니 제 슈족궤치 스랑하여 향규의 디심이 되니 기둥 가월은 뜰수흔 빈 산천정괴와 일월디명을 일편도이 타나 지괴과인하여 가인지스의 맞출 벼 아니니 앓갑다 녀지 되미여 만일 남지 되던들 엇디 스업이 업스리오 <임화정연> 1권 9~10면.

18) 쇼비 오류 세의 부인을 만나 노쥬의 의를 미즈므로브터 부인의 쇼비 스랑하시미 동괴 갖트시고 미드미 일신갓치 하샤 귀천을 기회치 아니시니 쇼비 쏘흔 부인을 우렷는 뜻과 정성을 미드미 복두갓치 하여 노쥬 성녀의 간담을 셔로 빗최고 영육을 흥가 디로 하여 부인이 빅세 안가하신 즉 쇼비 쏘흔 부인의 뒤홀 썩라 죽어 녀시 셔로 좃츠려 하였습더니 <임화정연> 61권 53~54면.

괴를 만나디 말고 빅년의 복을 안향하라 이번의 내 고향의 가 부모의 분산을 보고 거거를 츠즈니 무스히 잇서 어딘 처즈를 어더 집을 덩하고 부모의 향화를 밧드니 이만 영형이 업는디라 나는 인간을 사절하는 사름이어니와 현대는 세시 족흔디라 맞당이 즈로 그림혀여 부모의 제시 구츄치 아니케 하라 섬월 왈 형이 니르디 아니나 쇼미도 넘너흐는니 스시 향화의 구츄하미 잇게 흐리오

<임화정연> 61권 70면.

자신의 재주를 억누르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서 석가월은 그간 자신을 괴롭게 했던 세속의 인연을 돌아보고 정리하는데, 인용문에 볼 수 있듯이 고향을 찾아가 그간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다. 대여섯 살에 불과한 자신과 여동생을 여종으로 판 부모의 묘를 돌아보고, 오라비를 만나고 온 석가월은 그가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향 소식을 석섬월에게 전한다. 이전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고향과 오라비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굳이 출가를 앞둔 시점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세속 가족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행위이며, 더불어 뛰어난 자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움을 직시하고 내면적 “화해”¹⁹⁾를

19) 세속의 모든 고뇌를 떨어내고 화해하는 마음은 도교가 강조하는 중요 자세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 민중도교 권선서인 『태상감응편』은 자기 내면, 타인, 자연, 사회 등의 모든 것과 화해하는 윤리관을 견지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가치 있는 도덕풍속을 제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도덕정신에 속하는 和諧의 정신이 공유된다. 먼저 사람 자기 자신 내면의 화해와 안정이다. 둘째, 사람과 자연의 화해와 안녕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내심의 평정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또한 자애로워야(慈心於物) 할 뿐 아니라 昆蟲草木에까지도 그래야 한다. (중략) 셋째, 사람은 사회 안에서 화해해야만 한다.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류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다.”(윤찬원, 『太上感應篇에 나타난 道教 윤리관 연구』, 『도교문화연구』 31, 한국도교문화학회, 2009, 176~177면.)

시도하는 것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²⁰⁾

세속의 고통과 욕망을 버리고 내면적 화해를 하는 것이 출가를 완성함에 있어 중요한 수련 과정이라는 점은 석가월이 자암진인 청계선생을 만나 나눈 대화²¹⁾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계선생은 좋은 배우자를

20) 석가월이 지혜롭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안타깝다는 발화가 작품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 발화는 서술자는 물론이고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 이를 근거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비록 석가월이 여중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놓고 한탄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내적 갈등이 표출되게 된 사건이 임규의 첩이 되어 적국 양씨와 갈등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석가월이 내면적 갈등을 하지 않았다면 당대의 규범과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적인 삶을 선택하고 가정에 안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석가월은 차마 주인과 같은 남편을 둘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대며 불만족스러운 현실 처지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리고 출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정씨 가문의 여중 신분이 아닌, 한 가정의 딸이자 누이였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세속적 부귀와 영화에 대한 미련도 또 속세 가족에 대한 미움도 없음을 자매 석심월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도교 권선서 등이 강조했던 ‘화해’의 일종으로 해석하였다.

21) 선성이 쇼왈, 석낭은 총명예디흔 사름이로디 선술의 허무흔을 아디 못ㅎ느뇨. 너는 육신이라도 불치 엇디 못ㅎ엇거니 엇디 능히 하날과 디하를 갈허리오. 이러므로 노뵈 그디 녀술 닛그러 니당 취미궁 교쥬낭낭던으로 갖느니 그디 철석디심이 쥬모로 더브러 가부의 통을 난호며 적국 되기를 원슈갓치 피호여 일개 녀지의 몸으로 개연이 텃디간 뉴락호여 소오 년 스이의 도로의 고초호미 무궁호나 호발도 피로워호미 업고 고초호 동이나 누엇츠며 부귀를 스모호미 업서 가디록 널널호미 금석 갓터여 세상 영육을 부운갓치 녀이고 청청호 도형을 스모호여 천산만슈를 디나 이 짜히 니르니 고금의 녀지 된 지 뉴 석낭 갓터니 잇느뇨. 계집의 밋옴은 틀 갓터여 취가취부호여 부귀영광을 도히 녀이디 아니리 업거늘 그디 낭낭 갓튼 대군즈를 거절호여 기심이 구든 등 퉁디디모와 현심널헝이 무쌍호 고로 텃디신명이 감동호여 디원을 조츠도시 슈학득도호여 되 크면 바로 선누의 오르고 적으면 후세의 호그로이 되어 놓이 못시 감기는 한을 설호여 신세 영귀호여 님신공업이 텃하의 텃히며 일홈이 스희의 단동호여 영명을 뉘뵈의 드리워 영웅호걸의 되리니 그디 본시 낭낭과 인연이 잇시므로 비록 연분을 쫓츠나 그 슈는 비오디 못홀 거시오 도흔 가인을 여더 그디 몸을 더호리니 노부의 일미 가쳐스의 체 되어 습지 잇고 녀이 업더니 처스의 희첩이 일너는 심호니 명은 묘량이오. 품덜이 아름다온 고로 미지 친녀갓치 스랑호여 방년 이십의

구하여 “취가취부호여 부귀영광을 도히 녀이”는 것이 상사인데, 석가월은 “주모로 더브러 가부의 통을 난호며 적국 되기를 원슈갓치 피호여” 좋은 인연을 마다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굳은 마음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턴디신명이 감동호여 디원을 조츠 도시 슈학득도호여 되 크면 바로 선누의 오르고 적으면 후세의 호기로이 되어 놓이 못시 잠기는 한을 설호여 신세 영귀호여 님신공업이 턴하의 답히며 일홈이 스희의 단동호고 영명을 독빅의 드리워 영웅호걸의 되리니”라고 하여 석가월이나 조씨가 처음 뜻을 잃지 않고 수련하면 선루에 오를 수 있다고 격려한다. 석가월은 이 가르침에 따라 영웅 군자와 결혼하여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거부한 채, 사천성 아미산에서 호복성 무창까지 가는 먼 길의 고행²²⁾도 마다하지 않으며 출가 수련을 하는 것이다.²³⁾

세속적 고뇌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과 화해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진정한 도교 세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으로 <임화정연>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축적할 것, 즉 “행선적덕”하는 것을 꼽는다. 정운희 등에게 최종 출가 허락을 받은 후 길을 나선 석가월은 교주 낭낭의 예

디금 비뿔을 덩치 못흐른 제 팔지 극히 세고 복의게 슈형 출가홀 팔지므로 혼인이 극히 머흐디 님공이 쇼설이 된죽 군즈 복분이 녀지의 지앙을 단압호리니 이 오히로 네 몸을 디하여 님낭의 칠희의 슈를 치오미 맛당하니 <임화정연> 58권 26~28면.

22) <임화정연>에서 청계선생 등이 머무는 기린동은 사천성의 아미산에 있는 여섯 동 가운데 하나인데, 석가월은 이곳에서 청계선생으로부터 출가할 해법을 들은 후 만세산 가차사의 집을 거쳐 조씨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호복성 무창까지 이동한다. 사천성에서 호복성 무창까지의 여행이 쉽지 않다는 것은 청계선생이 가모랑을 위해 초혜 한 쌍을 주며 “가시는 범인이라 심규약달이 그터를 쓰라 만 리를 밟섭디 못호리니 이 초혜를 신기면 즈연 형뵈 날니여 슈교로오미 업스리라.”(<임화정연> 58권 31면.) 라고 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신선이 되는 수련 과정에서 인내력이 요구된다는 상상력은 <남궁선생전> 등과 같은 내단을 강조하는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박영호(1990), 앞의 논문, 145~146면.)

언에 따라 자신의 스승이 될 조씨를 만나기 위해 조씨가 있는 무창으로 떠난다. 이때 석가월이 길 위에서 처음 만난 인물은 재물에 눈이 먼 배다른 아들 진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여인 육씨와, 오라비 진준에 의해 창가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육씨의 딸 춘화였다. 석가월은 물욕 때문에 누이를 창가에 팔고 어머니를 죽이려 한 진준을 부적과 은신법 등을 사용²⁴⁾하여 제압하고, 창가로 팔려갈 뻔한 춘화를 구해낸다.

물론 석가월은 출가를 결심하기 이전부터 지혜로 위기와 불의를 극복, 처단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육씨와 그의 딸 춘화를 위기에서 구해준 이 사건은 그 이전까지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석가월이 해결한 이전의 사건들은 모두 그녀가 정씨 집안의 시비라는 위치에서 주인을 위해 행한 것들이다. 일종의 의무인 셈이다. 그러나 육씨와 춘화는 석가월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 인물들이므로, 이들을 구제한 것은 온전히 도덕적인 선심에 기반을 둔 적덕 행위인 것이다.

남을 돕고 선을 행함으로써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행선적덕의 가치관은 민중 도교의 권선서인 『태상감응편』 등이 강조하는 내용이다.²⁵⁾ 도교는 연단을 통한 불노장생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수련도 강조하지만, 조선 후기 민중 도교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 사회적 차원의 역할도 강조한다. 민중 도교의 성전인 『태상감응편』은²⁶⁾ 권선정

24) 도교의 방술(方術)로 주문, 부적, 액막이, 기도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석가월은 육씨와 춘화를 구하기 위해 부적 등의 방술을 행한다.(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옮김, 분도출판사, 2000, 41면.)

25) 선행연구에 따르면 『태상감응편』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종교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실천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중략) 『태상감응편』이 열어 놓은 의례체계는 송원 시대 이후의 각종 종교적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行善積德은 일종의 필수적인 종교적 실천으로서” 변창하게 되었다고 한다.(윤찬원(2009), 앞의 논문, 173~174면.)

26) 이진수(2011), 앞의 논문, 240면.

악과 응보 사상을 핵심으로 하면서 “도덕적 선 행위를 끊임없이 축적하여 신선이 될 수 있음”²⁷⁾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선서이다. 비록 <임화정연>이 석가월과 조씨의 출가 이야기를 창작할 때 『태상감응편』과 같은 도교 권선서를 직접 활용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작품 곳곳에서 태상노군이나 전세의 응보, 적선 등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임화정연>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권선서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²⁸⁾

첩의 죄악은 빅 번 죽어도 속디 못호오려니와 이제는 찌다랏습느니 바라건디 원한을 프러브리쇼셔 첩이 싱싱의 보은키를 싱각하리이다 부인 왈 디난 바는

27) 김윤경,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발현과 전개 - 조선후기 관제신앙, 선음즐교, 무상단-』, 『한국철학논집』 35, 326면.

28) 다만, 본 연구는 <임화정연>이 수용하여 작품에 녹아내고 있는 도교적 요소나 사상은 평이하고 단순한 대중적 차원의 것으로, 도교와 유관한 작중 내용이 종교적, 철학적 깨달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학문적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행연구(김정숙, 『19세기 유교의 통속화와 저승전의 이념성-조선후기 勸善書의 유행과 관련하여-』,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2017.)에 따르면 18-9세기경부터 성리학이 통속화 되면서 생활 속 실천 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속화되었고 또 도교 권선서 언해본이 널리 유포되었는데, 이들 권선서는 온전히 도교 이론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 불, 도가 통합된 양상을 보여주면서 부녀자나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평이한 생활 윤리를 전했다고 한다. 물론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임화정연> 등의 서사 전개에 있어 ‘도교(요약(妖藥), 변신술, 도사의 조력 등)’가 중요한 가치로 개입했다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도 있다.(채윤미, 『<쌍성봉효록>에 나타난 여성과 도교의 관계』,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채윤미(2018), 앞의 논문; 채윤미(2019), 앞의 논문 등 참조.)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이 요약 복용이나 변신술, 도사의 조력과 같은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들이 흥미를 끄는 일종의 창작 관습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피상적, 대중적 차원의 도교적 관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깊이 있는 도교 신앙이나 철학을 통해 옳이 도교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후 도교 권선서의 서사와 국문장편소설 속 도교 서사를 대비하여 소설이 수용한 도교 사상의 깊이를 탐색해 보려 한다.

이의어니와 이제나 간악을 버리고 나의 여의 호구의 찌러져 스시가 급홀 거시니 썬을 어귀디 말고 힘 썬 구제홀딘디 원한을 브러버리리라 정옥이 나아와 읊히고 왈 나와 그디는 원가로 썬 부부의 의 잇시나 실은 구적이라 므슴 은의 잇시리오 연이나 그디 신세 가련히고 횡실이 청정호므로 하늘이 즈연 도흔 길을 그르치리니 가디록 슈신행도하라 나는 밧서 환싱호여 넘승상 으지 되어시나 타일 보덕보은호리니 금일스는 명명호 과보를 알게 호미라 비록 기러기를 전호고 상명을 덕히미 이신들 므슴 부부의 의를 알니오 금일노부터 미즌 원업을 프러바리니니 모로미 도시 선도를 닷글디어다 (중략) 그 가온디 즈개 머리의 운남을 쓰고 허리의 황스광삼을 붓치고 단쥬 보디를 두로며 손의 청옥 경즈를 들고 밧의 요두뿔을 신고 셋시니 의히히 신선의 장속이오 부처의 곳 아니니 산문 니고의 모양이 아니오, 명명이 태상노군의 모양과 도관이니 도스의 형상이리라

<임화정연> 51권 26~28면.

<임화정연>이 내단 수련이나 불로장생보다는 화해와 적덕 그리고 승부사상(承負思想)²⁹⁾을 중시하는 민중 도교적 가치관에 좀 더 근접해 있음은 위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은 조씨가 교주 낭낭을 만나 자신의 전생 과보와 미래사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먼저, 요절한 남편 여정옥이 나타나 전생의 원업을 풀자고 제안하며 선업을 닦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서술된다. 그리고 이어 조씨가 근 미래에 불교의 이교가 아닌 도교의 태상노군과 같은 도사가 되어 선업을 닦게 된다는 예지가 등장한다. 이 예지에서는 조씨가 세속의 인연을 끊고 도관을 관장하는 도사가 되는 사건이, 단지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조씨 개인을 위로하고 해방시켜

29) 전생의 과보가 현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응보관념은 민중도교 권선서인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의 핵심 사상이다. 『태상감응편』의 ‘승부사상(承負思想)’은 선한 응보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운명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고에 기반을 둔 적극적 사회윤리라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이진수, 『태상감응편의 효사상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48,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1, 250면.)

주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교주 낭낭이 조씨에게 하는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덕을 힘쓰며 즈비하기를 정성으로 하여 부정을 구치 말고 어딜고 덩대히 나를 붓들며 급하고 위티히 나를 구하여 욕심을 업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업을 닦고 모범이 되어 타인의 삶을 구제하는 사회적인 차원이 선행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씨가 겪는 현세의 고통이 전세의 원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선업을 닦아 운명의 행로를 바꾸어야 한다는 승부사상의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다.³⁰⁾

선행의 사회적 확장을 도모함에 있어 조씨가 실천한 구제의 한 예로는 “태조의 위질(危疾)”을 고친 것을 들 수 있다.

선네 깃거 과거 미락을 다 강논하니 도시 잠삼혀여 비호기를 다히미 선네 몸을 니러 니별 왈 선가의 연분이 등하여 낭낭이 힘 써 주션하시니 큰 도법을 순식의 씨드르미 나는 도라가니 오십 년 후 취미궁의 가 서로 보리니 모로미 막음 다기를 금육궤치 하고 정신을 고요히 하여 비록 법술을 아나 일절 누설치 말고 미세한 일의 베프러 사름을 경혹계 말디니 선가의 즈연흔 별이 있고 세상

30) 『태상감응편』이 선행과 사회도덕을 권면하는 민중도교의 대중적 성전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신앙을 검토해보면 “도사들에게 최고의 신으로 되어 있던 원시천존이나 삼청 등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 또 “현천상제나 태상노군 등도 그다지 친숙하지 못했다”고 한다. 관운장이나 여동빈과 같은 신선이 인기 있었던 신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구보 노리따다(2000), 앞의 책, 358~361 참조.) 또 조선시대 널리 읽혔던 도교경전은 『진고』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공간 인식이 <구운몽>이나 <남궁선생전>, <숙향전>과 같이 도교소설이라고 불리던 작품에 녹아 있다고 한다.(김수연(2014), 앞의 논문 참조.) 그런데 <임화정연>은 『태상감응편』이 강조하는 적선에 대한 견해를 적극 수용하고 태상노군을 등장시키고 있어 흥미롭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출가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살피기 위해 여인들의 출가 과정과 후일담을 살펴보는 것으로, <임화정연>의 도교 관련 요소들이 도교 경전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중 도교적 요소들이 도교 경전에 기반을 두고 정밀하게 구현되고 있는 가 아닌가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추후 논의를 통해 밝혀보려 한다.

사름이 요인이라 디목허리니 쓸 곳의 쓰고 베플 곳의 항하여 천만 신듯허디 석
가월은 그디와 한 가지로 신회흔 법을 가르치디 타인의게 전파치 말나 명년 춘
의 태즈의 위달이 잇서 나라히 브르리니 드러가 교주 낭낭 주신 단약을 써 병을
구하고 그 침범하는 원귀를 제어하여 공을 일우고 쾌히 도를 닥그라

<임화정연> 65권 17~18면.

조씨는 선녀의 예언에 따라 태자의 중병을 고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태자의 병’을 고치는 행위는 “교주 낭낭 주신 단약을 써 병을 구하고 그 침범하는 원귀를 제어하여 공을 일우고 쾌히 도를 닥그라”는 선녀의 발화를 토대로 한다면, 적덕과 수련의 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 사회적으로 자기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씨는 대중을 현혹하는 사사로운 일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도술을 사용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일이 있는 후 조씨가 황제의 허락을 받아 출가하게 되었고, 그 후 왕조 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에 노력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임화정연> 속 도사의 활동이 황실을 위한 것으로 초점화 되었다고 보았다.³¹⁾ 그러나 조씨 등이 도교에 입교하여 도를 닦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원귀를 제어하는 행위가 옳듯이 황실을 위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도교의 윤리 사상에 관한 연구를 보면 도교의 덕이나 선행은 충, 효 등 유교의 것과 통하는 것도 있고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³²⁾ 또 『태상감응편』과 같은 권선서가 조선에서 국가적으로 권장하였던 ‘권선징악’을 표방하는 유교 선서들의 연원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교의 강조점이 장생이나 불사라고 하여 도교에서는 선악행위와 같은 윤

31) 선행연구에서는 조씨가 태자의 병을 낫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사로서의 활동이 “황실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초점화 된다고 보았다.”(채윤미(2019), 앞의 논문, 211면.)

32) 구보 노리따다(2000), 앞의 책, 49~51면.

리적 관념을 찾지 말아야 한다거나 유교의 선행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만한 ‘선행’만을 다룬다고 선을 그어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³³⁾

어시의 나라히서 크게 공역을 발하여 길디를 턱하며 승디를 갈히여 도시고
 품히니 도시 먼 곳을 구치 아나 동문 밧 벽운산 청농동을 덩히니 드디여 시역하
 여 슈천 간 대가를 나라철시 슈현과 각뵈 단비하고 도성 각식 장인이 무슈히니
 감역 니시와 낭관 범스를 섬턱히니 공교당녀하여 아오라흔 누디와 광활흔 단각
 의 치식이 녕농하고 아로삭인 들보와 그림 그린 첨하의 난간이 즈옥하고 옥섬
 이 층층히디 무문분당이 슈십 니의 둘러시니 가온디 대응보던을 닐우고 셔호로
 덩던을 놓히며 스면의 방정누디 무슈하여 슈호난창이며 디뉴발이 녕농찬난하
 여 대궐노 다라미 업고 도구를 다 옥석으로 꾸미며 옥돌노 비를 세워 도시의
 신기흔 통성을 찬송하는 글을 삭여시니 유명히미 고금의 처음인 듯하더라 슈삼
 삭의 필역하고 복명히니 텃지 관호를 사익히샤 도턴관 신기문이라 히시고 낭낭
 이 전일 보니엿던 궁녀를 보니샤 도시를 스후히라 히시고 니시로하여곰 괴용즙
 물을 갖초게 히시고 태즈와 각던의셔 노비 슈천 구를 사송히샤 스환케 하며 각
 부 이문으로 하여곰 군스 스빅식 덩하여 밧그로 순초히게 히시고 공교로운 당
 인을 턱하여 삼청과 노군의 상을 밧드라 도시로 하여곰 슈도케 히시더라

<임화정연> 67권 8~10면

조선 후기 유교가 통속화 되고 권선서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교와 도교
 가 간섭하는 양상은 작품이 묘사하는 도교의 도관 형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은 조씨가 태자의 병을 치료한 후 황제로부터 조천궁³⁴⁾과 각

33) “권선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태상감응편』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행위지침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쓰여진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종교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실천을 권장하는 것이었다.”(윤찬원(2009), 앞의 논문, 173면)

34) 명대 최고의 도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 조천궁은 1393년 명 태조가 유연연이라는 도사에게 고도(高道)라는 호를 주고 서산에 건립해 준 도관의 이름이다.(구보 노리

종 선물, 하인을 하사받는 장면인데, 조천궁은 태상노군의 상을 두고 조씨가 수도하는 도교적 공간이지만 동시에 황제의 은덕과 영향력이 미치는 황궁 근교의 유교적 공간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다.³⁵⁾ 현열진인 대사도 첩을 받고 출가한 도사 조씨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행하는 도관인 조천궁을 <임화정연>은 도가적 공간, 유가적 공간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 청월정명한 인물들이 모여서 빈도의 지극한 원을 이루는 곳, 맑은 정신과 선심이 살아있는 청정한 곳으로 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욕심을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려는 사람들이 수백 명 이상 모여 선법을 찾는 조천궁은, ‘백우선’, ‘청옥과 경자’, ‘순금 향로’, ‘유리병’, ‘마뢰합’ 같은 어휘로만 수식되거나 속세와 완전히 절연된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도교 선계와는 다른, 수행, 선행 등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다(2000), 앞의 책, 344면.) 황제가 공을 세운 인물에게 하사한 도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씨의 도관도 조천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5) 선행연구(한길연(2007), 앞의 논문, 338면.)에서는 이 공간을 완전한 탈속공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심산공곡의 협곡이나 암혈 등의 공간에 은거하는 것보다 천자에 의해 보호 받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이러한 공간이 현세도피적이지 않은 여성중심적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채운미(2019), 앞의 논문, 192~227면.)에서는 조천궁은 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조씨 등의 행위 또한 황실을 위한 것으로 초점화된다는 점에서 지배층의 공식적 관리와 통제 대상이 되는 곳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임화정연>이 정밀한 도교 이론을 구현하고자 한 작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천궁이라는 도관이 도교 경전이 묘사하는 도관과 얼마나 흡사한가, 얼마나 탈속적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다. 본 논문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조천궁의 도사 조씨와 석가월의 수련이 개인 연단보다 사회적 구제에 힘쓰는 방향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그들이 사는 공간이 온전히 속세와 격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후일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속세와 절연되지 않은 이 공간에 사는 두 인물이 출가 후에도 세속 가족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의 부러움만을 자아내지도 못한다는 점에 있다.

4. 낭만적 대안과 엄정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하기

- 결론을 곁하여

사대부가 여성이나 여중이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도교 세계로 출가하여 도를 닦는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임화정연>의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본문에서 분석한 출가 결심과 수련에 관한 내용에 이어, 출가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후일담에 주목하여 여성 인물의 출가 이야기가 함의하는 바에 대해 결론을 곁하여 서술해보려 한다.

국문장편소설은 현생의 고난이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문과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충실한 삶을 사는, 소위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 고난을 겪을 때, 작품은 그 인물이 알지 못했던 전생사를 끌어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곤 한다. 그리고 인물이 고통을 의연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더욱더 충실하게 현실 규범을 따를 때 그것이 해소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독자에게도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천상 혹은 전생의 업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이처럼 현세적 고난의 이유를 전생의 업보에서 찾아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문장편소설 독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수용되었던 듯하다. 삼대륙 국문장편소설을 비롯한 많은 소설들이 적강(譴降)을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소위 선인과 악인의 대립을 종종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을 통해, 혹은 여승의 팔자 풀이를 통해 자신의 전생 업보를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지만, 인내하라는 대안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그런데 <임화정연>은 도교 세계로 출가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냄으로써 전생에서 비롯된 업보로 인한 고난을 오롯이 인내하라고 하

지 않고 관습을 깨는 해소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새롭다. 그리고 <임화정연>이 제시한 출가라는 고난 극복의 대안은 그 시작은 어떠한 것인가에, 출가하는 여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행위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고, 기존 질서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⁶⁾ 또한 출가 이야기의 후일담 부분에서 조천궁이 여러 이유로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여성들이 귀의하여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임화정연> 속 조씨와 석가월의 출가 선택은 종속적인 아내의 위치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공간인 성의궁으로 거처를 옮긴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의 선택과도 비슷한 듯 다르게 보인다. 충효혜 역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머물지 못한다. 한 달의 반은 성의궁에서 나머지 반은 가족 안에서 보내라는 시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기만의 독립 공간 확보라는 낭만적 대안은 현실적 요구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이다. 그녀는 가족관계라는 현실을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³⁷⁾ 이에 비하면 가정과 가문 공간에서 벗어나 도관에서 도사로 살아가는 조씨와 석가월의 삶은 통쾌한 낭만적 대안인 셈이다.

36) 선행연구에서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교로 입교한 이들 여성들의 행위가 지배 이념에 균열을 가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들의 도교적 행위가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황실을 위한 활동에 초점 맞춰져, 지배이념을 수호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고 보았다.(채윤미(2018), 앞의 논문, 91~93면.)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출가가 일차적으로는 고통에 처한 대중을 구제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들의 출가 후 행위 또한 황실을 위한 정치적인 것으로만 초점화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37) 선행 연구에서는 “그녀가 성의궁에 머물게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의 충효혜가 가정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게 되는 문제적 장면이 지닌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이 공간을 계속해서 꿈꾸고 결국은 이 공간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한길연(2007), 앞의 논문, 339면.)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화정연>이 이런 낭만적 대안을 제시한 후 후일담을 통해 조씨와 석가월의 출가 선택을 두고 여러 차례 고민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 <임화정연>은 석가월과 조씨의 출가를 바라보는 작중 인물들의 상이한 견해를 작품이 끝나는 시점까지 몇 차례 더 제시한다.

녀도 이부의 모든 부인너 도라가니 녀뵈 마즈 도시의 출판디스를 못즈오니 부인이 탄식고 곱오더 도턴궁이 화려하고 도시의 거동이 더욱 괴이하며 빅시 쥬족하나 맛츄너 청춘화미 속절업스니 엇디 가련치 아니호리오 삼인이 츄튼하고 슬허하나 뵈져 갓던 시녀의 무리는 텃상옥경을 구경홈 갖트여 어즈러이 칭찬하더라 님상국 제희 빅시 등이 도라가 삼부인긔 관동 위의 빛나며 거룩홈과 도시의 괴이함을 전하며 칭찬하니 삼부인이 가 곱오더 제 비록 신긔호 도행이 일시의 단동하고 거디 신션 갖트며 뵈흔 바 지뵈이 구산 갓타나 그 모습 귀하미 이시리오. 일성을 명박흔 궁인으로 기리 궁딘하니 그 몸이 업셔다미 그 츄최 민멸하여 외로운 공산의 혼 쥬 흙이 되어 뵈라셔 그 향화를 니오리오 늦거운 신세 단실노 가련허리니 녀염가 농부의 디어미만 갖디 못호도다 가시 곱오더 출가하미 마디 못홀 일이오나 천첩의 어린 쇼견의는 녀염 간고흔 집 디어미 되 어 슈다 즈식의 괴환을 녀녀하고 혹 피려흔 디아베 무디흔 거동을 디하여 즈가 일신이 괴롭고 남의 고펡이 갖트여 평성을 곤궁히 디니스니 출하리 출가하여 일신이 한가하고 청정하여 득도하면 죽어도 한가홀 거시니 인간 쫓글의 구츠코 더러운 향화를 뵈스니의셔 닛디 아니호리잇가 화부인이 웃고 곱오더 이 가시는 본디 산둥 은스의 귀문의셔 닛시미 의논이 이러토허도다 뉴시 상선이 곱오더 가시의 말이 경논이라 녀염 여지 그릇 무식흔 당부를 만나 신세 불평하여 쥬게 스스니 출하리 인간을 사절하고 도시의 뒤홀 썩로미 편하리이다 하니 모다 그 말이 올타 허더라

<임화정연> 67권 20~22면.

인용문은 조천궁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 황, 소씨를 비롯한 여성 인물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씨의 출가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장면이다. 발화하는 사람의 신분에서 따라, 가내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인생관에 따라 각각 상이한 의견을 표출하는 인물들의 발화는 향유자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출가라는 고난 극복 방법을 평가해보게 만든다. 후사를 잇는 문제나 사후 제사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의 발화, 세속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한가함을 누리는 삶을 의미 있게 본 인물의 발화, 조천공의 화려함에 우선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발화 등 제각각인 이러한 자유로운 발언들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 지향하는 이상, 사회 규범, 타인의 시선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소설을 읽고 자기 문제를 대입하여 상상해보았을 수 있다.³⁸⁾

조씨와 석가월의 출가를 두고 작중 인물들이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선택한 삶이 유교적 이념에 경사되어 있는 장편소설 향유자들에게는 불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며나리를 출가호여 비천흔 뉘 되게 하니 엇디 한흠디 아니리오”, “출가호미 천흐나 고금의 왕왕이 공쥬와 후비라도 슈도호여 득도호 니 이시니 관게치 아니리이다.”, “종상 후 출코져 호신들 둥 되느니는 디극히 하천흔 무리라 후문잠영의 스족 부녀

38) 선행연구에서는 조씨의 도술을 본 후 “누구도 조씨에 대한 서글픔이나 비아냥을 제기하지 않으며, 동정조차 느끼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중략) 조씨의 도술 시연을 목도한 사람들이 침묵하게 됨으로써, 조씨가 겪었던 고뇌와 혼란은 마침내 온전하게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김지연, 『<임화정연> 속 선택지의 맥락과 인정 획득의 전략 - 세 여성 인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7,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019(1), 180면.) 또 조옥연과 석가월의 출가를 모험과 탈주라는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되거나 해방되었다고 분석하였다.(김지연(2019(2)), 앞의 논문, 241~267면 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조씨가 시어머니 소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의 양상을 볼 때, 출가를 고난 해결의 완벽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연 현실의 고난이라는 것을 온전히 떨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작품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 헝홀 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용한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누군가는 비천하거나 하천한 무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닌,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상적으로 여기는 방식을 고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기는 편할지 몰라도 사고의 확장이나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적어도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같이 유교질서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선에서라도 기존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시도가 있을 때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화정연>은 효나, 열절의 수호와 같은 유교적 대안을 넘어, 도교적 상상력의 기반 위에서 다소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유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³⁹⁾ 그리고 출가가 고난을 극복하는 최상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 작품 속에서 스스로 여러 차례 질문⁴⁰⁾

39) 출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대안으로서, 이것을 일반화시킨다면 무감각한 현실 인식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고난에 빠진 인물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대안 모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이 가정, 가문의 담장 밖으로 나가는 선택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들이 불교가 아닌 도교 권선서들이 유, 불, 도 사상을 아우른 채 식견이 없는 부녀자나 민간 백성들 사이에서 교화서로 유행하였는데, 그 근간은 도교에 두고 있었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도교 권선서는 이념의 차원이 아닌 민간의 윤리서로서 수용되어 저변을 넓혀”(김정숙(2017), 앞의 논문, 314면.)갔기 때문이다.

40) 작중 인물들이 출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후일담 외에도 석가월이 출가를 결심했을 때 정운희 등이 보여준 반응, 조씨 유모, 청계선생의 발화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문에서 인용하였다. 후일담의 발화를 포함한 이러한 반응들은 출가라는 선택을 접할 때 독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시부모나 남편의 박대, 악인의 모해 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효를 행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며 절개를 지키는 여성 인물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여타의 등장인물들이 염려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을 해봄으로써 적어도 이 작품이 손쉬운 해결법으로 출가를 제시한 것이 아님을, 또 그들이 출가한 도교의 도관이 낭만적인 오유(遨遊)의 공간에 머무는 것만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조천궁에 다녀온 인물들의 후 일담식 발화들은 <임화정연>의 조천궁이 충만함이 넘치는 공간, 현실의 모든 결함을 보상해주는 완전한 공간, 낭만적 오유의 공간 등으로 묘사되는 유선문학(遊仙文學) 속의 선계⁴¹⁾나 누구나 부러워하여 도사가 된 인물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화려한 도관⁴²⁾과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설 밖에 실재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불행한 현실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면서, 불행 극복의 한 대안으로 제시해보았을 조천궁으로의 출가는, 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결핍을 반영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⁴³⁾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임화정연>은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고악(高嶽), 성악(聖嶽)과 같은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선인이 되는 신령한 공간”⁴⁴⁾을 상상해내지 않았다. 석가월과 조씨가 출가한 조천궁은 “먼 곳을 구치 아나 동문 밧 벽운산 청농동”에 위치했다는 서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현실계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내단수련을 하고 『황정경』을 읽으면서 진토 가운데 신선이 되기를 바라는 도사 조씨가 있는 공

41) 정민, 『유선문학의 서사구조와 도교적 상상력』,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5, 한국도교문화학회, 1991, 201~207면.

42) <영이록>에서 손기가 좌정하는 도관의 경우 인물 간 관계의 역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며 부귀영화를 과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허순우, 『현실적 문제제기와 낭만적 해결법의 모색 <영이록>의 작품성격 재 고찰-』,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83~289면.) 심사위원께서도 제안하신 바, 도교 세계로의 출가에 관해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출가이야기가 드러내는 성격과 지향의 차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볼 계획이다.

43) 선행연구에서는 고소설 속의 선계를 “현실에서 결핍된 것을 반영하며 현실에 대한 보상 및 대안으로 만들어진 상상계”이면서 “유한한 인간계 안에 무한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김수연(2014), 앞의 논문, 398면.)

44) 김수연(2014), 앞의 논문, 386면.

간이지만 시모 소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눈상의 막이흔 거슬 쫓디 못흐는 고로 구고귀 날마다 문안흐는 네는 폐치 못”했던 현실의 조씨가 살아가는 이중적 속성을 내포한 공간이다. 조씨와 석가월이 도사로 좌정한 이야기와 그 후를 그린 후일담을 허구적 상상과 냉정한 현실인식이 갈등한 결과로 본다면, <임화정연>은 작중 인물에게는 출가라는 적극적이면서도 도덕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을지 모르나,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는 규범에의 순응과 거부 사이에서 다시금 자기 현실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한다.⁴⁵⁾ 만약 이들의 출가가 두 인물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결말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면 조씨가 황제와 시부 여 금으로부터 출가 허락을 받고 조천궁의 도사로 좌정한 후에 이어지는 황제의 아들 한왕의 겁박은 기대 밖의 사건이기 때문이다.⁴⁶⁾ 조씨가 도술을 써서 한왕의 불의한 행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도사로서의 조씨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읽을 수도 있지만, 황제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도관의 도사에게 음심을 품고 악인을 보내는 악행을 한왕이 서슴지 않는 점에서, 그리고 한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도사로 좌정한 조씨와 석가월의 삶이 탄탄대로에 놓여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니 <임화정연>의 출가 이야

45) 조씨와 석가월의 출가를 주어진 선 밖으로의 탈주로 보며, 탈주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해방시켰다고 보는 해석(김지연(2019), 앞의 논문, 265면.)은 이 대안의 낭만적인 측면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본 논문 역시 출가 이야기의 일차적 효과는 파격적 대안제시가 주는 통쾌함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선행 연구의 시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다만, 출가 결심, 수련에 후일담을 더하여 출가 이야기를 재독한다면, 이들의 출가를 구원과 해방의 해피엔딩으로 읽는 것에서 멈추기 어려운 면이 있음에 주목할 것이다.

46) 한왕이 조씨를 겁박하는 내용은 조씨가 도사로 좌정한 이후인 <임화정연> 67~68권에 서술되어 있다.

47) 이는 <영이록>에서 손기가 천사로 좌정한 후의 후일담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기는 낭만적 대안을 통해 독자가 대리만족하고 통쾌함을 느끼게 하다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힘을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임화당연기봉』, 강촌재 소장 72권 72책.

-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옮김, 분도출판사, 2000, 1~430.
- 김경미, 「〈옥수기〉 연구-이념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275~298.
- 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중요 쟁점」, 『도교문화연구』 14, 한국도교문화학회, 2000, 13~36.
-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79.
- 김수연, 「소설의 원형적 텍스트로서의 『도장』 연구 시론」, 『인문논총』 6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447~476.
- 김수연, 「애국계몽기 민족도교와 고소설 - 신자료 <몽견제석(夢見帝釋)>의 소개를 더하여」, 『동방학지』 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163~190.
- 김수연, 「『도장(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도가적(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1」,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71~403.
- 김윤경,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발현과 전개 - 조선후기 관제신앙, 선음즐교, 무상단-」, 『한국철학논집』 3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309~334.
- 김윤경,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전개와 변용 - 동학 증산교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39, 한국도교문화학회, 2013, 99~123.
- 김재웅, 「가문소설에 나타난 도가사상 - <천수석>을 중심으로」,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1998, 259~283.
- 김정숙, 「19세기 유교의 통속화와 저승전의 이념성-조선후기 勸善書의 유행과 관련하여-」,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2017, 297~324.
-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06.
- 김지연, 「〈임화정연〉 속 선택지의 맥락과 인정 획득의 전략 - 세 여성 인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7,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1), 151~186.
- 김지연, 「모험하는 여성과 ‘탈주’의 궁극 : 구원되거나 해방되거나」,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2), 241~267.
- 김현주, 「고전문학과 전통회화에서의 도교담론과 도교도상의 수용양상」, 『한국고

- 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31.
- 박영호, 「허균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 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125~159.
- 송정진, 「<임화정연> 연구: 필사본 72권 72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06.
- 윤찬원, 「명청시대 공과격들에 나타난 도교윤리」,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75~128.
- 윤찬원, 「태상감응편에 나타난 도교 윤리관 연구」, 『도교문화연구』 31, 한국도교문화학회, 2009, 157~183.
- 이어나가유코, 「조선후기 윤리신앙의 다변화와 도교 선서 유행」,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293~327.
- 이재봉, 「도교의 수련법」, 『아시아지역연구』 4,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역원, 2001, 212-237.
- 이진수, 「태상감응편의 효사상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48,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1, 237~271.
- 정 민, 「유선문학의 서사구조와 도교적 상상력」,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5, 한국도교문화학회, 1991, 193~217.
-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163~190.
- 채윤미, 「<쌍성봉효록>에 나타난 여성과 도교의 관계」,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167~190.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연구<천수석> 및 <임화정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05.
- 채윤미, 「고전소설 속 도교 형상화의 일고찰 -<임화정연>과 <손천사영이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92~227.
- 최윤희, 「손천사영이록의 이본 특징과 존재 의미」,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69~195.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국어국문학』 7, 국문학회, 2002, 325~355.
-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23~266.

허순우, 「〈임화정연〉 소개 칙 관련 서사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153~185.

허순우, 「현실적 문제제기와 낭만적 해결법의 모색-〈영이록〉의 작품성격 재 고찰-」,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69~305.

허원기, 「〈손천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23~253.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and Implications of Stories about
Women Who Become Taoists in <LimHwaJungYeon(林花鄭延)>

Hur, Soon-woo

This thesis was aimed at focusing on the selection of women who choose to become Taoistic monks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Those who suffered hardships in the family chose to become a sanctuary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hardship. Thus, I divided the story into a deliberate reason and a training course. First of all, I found the reason why two women decided to become Taoists in this novel. Therefore, it analyzed what death meant to them. And I looked at their efforts to become Taoistic monks. The tenets of Tao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focused on making good progress by practicing good deeds, reconciliating and buliding a virtue.

As stated in the preambl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how this novel was accepted in the form of Taoism in terms of how it was accepted. And finally, I analyzed that the female characters posed a question to the reader through a story, which makes it meaningful to ask readers to think about real life that exists on the back of a fantastic solution.

Key Words Death, Training, Reconciliation, Building a Virtue, Later Talks, Fantasy, Real Life, Taoism

논문투고일 : 2020.01.31
심사완료일 : 2020.02.16
게재확정일 : 2020.02.20